

백성들의 주택소요, 이제는 꿈이 아니다



근년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의 수입수준을 초과하고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은행대출이나 주택공적금에 의거하여 주택을 구매하는데 이는 날로 습관으로 되어가고있다. 급격히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날로 늘어나는 주택대출금은 국민경제와 사회생산생활에 심원한 영향을 주고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주택공적금과 주택구매 상업대출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일전 기자는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과 농업은행 해당 책임자를 찾아 정황을 료해했다.

주택공적금 직장인들의 급시우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단위 및 종업원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예금을 예금하는 주택분배의 화폐화, 사회화와 법제화의 주요형식이다. 주택공적금제도는 국가법률이 규정한 중요한 주택사회보장제도로서 강제성, 호조성, 보장성을 갖고 있다. 단위와 종업원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 주택공적금을 예금할 의무가 있다.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 해당 책임자는 이렇게 소개했다. 주택공적금은 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향, 진, 집체기업, 외상투자기업, 향향, 오문, 대만 투자상 기업, 도시와 농촌 영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민영비공유제기업, 사회단체, 외국 투자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상설대표기구 등 단위 기구사들의 종업원들이 납부해야 한다. 우리주에서 종업원들이 예금하는 주택공적금은 월 평균로임의 5~12%에 달한다. 조건이 되는 단위에서는 상향조절할수 있다. 해당 책임자는 또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제도를 건립한 단위의 종업원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부족 어려움을 공적금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

해당 책임자는 또 주택공적금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

이 소개했다. 단위에서 정상적으로 2년 동안 공적금을 예금하고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주택구매시 공적금을 향수한다. 부부 쌍방이 모두 공적금을 예금할 때 부부 일방만 향수한다. 공적금 예금을 중지했거나 체불하면 공적금을 향수할수 없다. 그리고 신분증 등 효력이 있는 증명과 고정 직업과 수입, 량호한 신용을 소요한다. 또한 주택구매금의 30%를 본인이 납부할수 있어야 한다.

주주택공적금 해당 책임자는 대출액은 상환능력, 주택구매금과 주택감정가에 근거하는데 주택구매가격의 7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주에서는 최고로 5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상환기한은 본인의 법적퇴직년령에 근거하는데 련속 5년간 공적금을 예금하고 신용이 량호하면 1~5년 연장할수 있다. 우리 주의 상환기한은 최고로 30년이다. 당면 공적금 리자는 5년 이하면 4.45%이고 5년 이상이면 4.9%이다.

연길시 모 기관에 출근하는 양모는 주택공적금의 혜택으로 주택소유의 꿈을 이루었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모 기관에 배치받은 그는 3년간 사업하다 인생의 반려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주택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부모들도 한편생 일반직장인으로 생활하다보니 집에 저금이 별로 없었다. 부모에게 손을 내밀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공적금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는 예비신부와 상의하고 연길시에 위치가 좋은 주택을 선정하였는데 주택 총가격은 30만원에 달했다. 그는 부모들의 도움으로 먼저 30% 주택금을 개발상한테 내고 나머지 주택구매금은 공적금을 신청하였다. 그는 공적금관리중심에 가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구매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후 부동산감정회사